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감염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환자증가와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필수, 이동 및 모임·외출 자제 등 개인생활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동절기 및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
방역수칙을 더욱 잘 지킵시다 !

이렇게 노력해 보아요!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수능 감독관, 수능 예비감독관

-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권고
 - ※ 외부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은 이용 자제
- ◆ 마스크 쓰기 생활화
-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 각종 모임 자제 및 취소
- ◆ 등교 전 자가진단 생활화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자제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조정 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2020. 11. 23.

수 곡 초 등 학 교 장